**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물의 순도와 부드러움으로 유명한 시라카미 산지 산들의 고지대에서 발원하여 물이 더할 나위 없이 맑다. 두 강은 후지사토마치 중심부에서 합류한다. 그곳에서 노시로시까지 남하해 요네시로강과 합류하여 일본해(한국 동해)로 흘러 들어간다.

길이 56.5km에 달하는 후지코토강의 원류는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 바로 바깥쪽에 있는 후지사토마치 북쪽의 외봉우리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해발고도 1,158m)에 있다. 수많은 작은 지류가 후지코토강으로 흘러가 다이라 계곡을 지나 후지사토마치의 평지로 흘러 들어간다.

길이 36km의 가스게강은 후타쓰모리산(해발고도 1,086m)의 산복사면에서 발원한다. 가스게강은 아키타현에서 유일하게 유역 전체가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 내에 있는 하천이다. 가스게강은 한때 자유롭게 마을로 흘러 들어갔지만, 1970년 후지사토 북부에 스바리 댐이 건설되면서 강물의 흐름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댐의 상류에서는 좁은 골짜기가 물로 채워졌고, 현재의 스바리호가 생겨났다.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수질이 높고 바다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회유어이자 일본어로 아유라고 불리는 은어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두 강 모두 건강한 은어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스바리 댐이 생기면서 가스게강의 은어 서식지는 강 하류로 한정되었다.

후지코토강과 가스게강은 곤들매기와 산천어 낚시로도 유명하다. 두 강 모두 입어 허가가 필요하며, 인근 낚시 가게나 상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강 모두 인기 있는 ‘계곡 트레킹’ 명소이다. 계곡 트레킹은 따뜻한 계절의 액티비티이며 하이커들은 강바닥을 따라 걸으며 계곡을 횡단한다. 길 없는 길을 가다 보면 과거 사람들이 시라카미 산지의 산들을 강과 개울을 이용해 이동하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